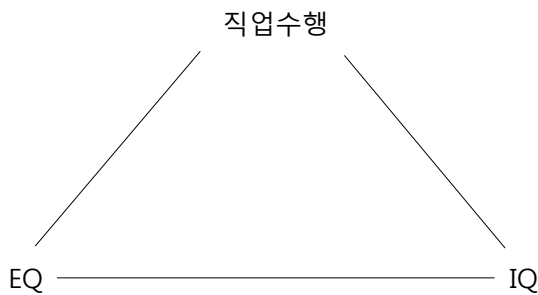


부모양육태도검사(PAT) 결과에 따른 지침서

자녀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힘은 부모와 교육자에게 있습니다. 부모는 감정적인 측면을 발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교육자는 인지적인 측면을 발달시키는 데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동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현시키려면 EQ(정서지수; Emotional Quotient)와 IQ(지능지수; Intelligence Quotient)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장차 자신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직업적 성공과의 연관성을 도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식을 보면, IQ=EQ 즉, EQ의 발달이 IQ의 발달과 균형을 이룰 때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든든한 정서적 안정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곧 부모입니다. 때문에 특히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인 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는 EQ와 IQ의 균형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핵심 열쇠인 이상적인 양육태도는 오직 부모님의 마음 다스림과 양육과정에서 적절한 격려, 적당한 압력, 알맞은 처벌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일정시간 간격(보통 6개월)으로 실시해 보면서 좀 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 부모양육태도검사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래에서 상, 하 기준점은 각 하위영역에서 제시한 바람직한 %를 기준(부모양육태도검사 프로파일 4쪽 참조)으로 상위 10 %이상 및 하위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 지지표현 경우 75%가 이상적인 백분위 점수입니다.

따라서 어떤 피검자 백분위 점수가 86이상이 되면 "지지표현 상", 만일 백분위 점수가 64이하로 떨어질 경우는 "지지표현 하"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아래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지지표현(상)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칭찬 또는 격려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실망을 많이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쉽게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조금 줄이시고 자녀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느긋하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2.지지표현(하)

자녀에게 애정 어린 감정 전달을 조금 적게 하시는 편입니다. 40% 이하로 되시는 분들은 특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기대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원래 양육자의 성향이 사려 깊고 과묵한 마음을 가진 경우에도 이런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감정 수준에 따라서 애정표현을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주 애정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합리적 설명(상)

자녀와 평등한 관계를 가지면서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유형입니다. 바람직한 태도이긴 하지만 자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부모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양육 받은 경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긴장을 가지기 쉬운 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세 번의 설명이후도 계속 말꼬리를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단호한 지시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2.합리적 설명(하)

자녀에게 언어적인 설명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편입니다. 특히 40% 이하로 내려간 부모님께서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좀 더 많이 하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척도가 너무 낮으면 부모님의 성향이 과묵하시거나 자신이 양육 받아 온 과거 경험을 자녀에게 그대로 반영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아버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입니다. 바쁜 직업 활동으로 힘드시겠지만, 자녀에게 일정시간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하여야만 자녀의 사회적 대화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되어 자신감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3-1.성취압력(상)

자녀가 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성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녀의 지능수준이 상위 20% 정도에 속하지 못할 경우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 할 것입니다. 자칫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지 않고 그냥 "하는 척 하는 아동"으로 발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태도에서 조금 낮추어서 자녀에게 지금보다 5-10% 정도만 더 향상시켜 보라고 압력을 주세요. 압력이 없는 세상살이는 없지만, 자녀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달성할 수 있는 압력을 넣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자녀

를 두고 있는 부모님께서서는 미리 너무 많은 과외 공부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육방식을 고수하시면 상식만 많이 갖추고 진정 중요한 사고력은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3-2. 성취압력(하)

보통 아버지의 경우 이런 점수를 가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 점수와 모 점수 차이가 너무 클 경우인데, 과제를 완성시키는 집중력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아동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쏟아 붓는 노력을 덜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머니 수준과 적당하게 맞추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상적인 점수까지 올리는 과정에 자녀의 수행력(예, 피아노를 열심히 치거나 장난감을 열심히 조립하거나, 친구들과 열심히 놀 때 등)이 발전될 경우에는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을 함께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1. 간섭(상)

간섭은 감독과 함께 어린 유아시기에는 절제된 행동발달이나 과제 집중력을 증가시키는 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5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간섭입니다. 기분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하게 되면 간섭의 효과는 부정적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가 충동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건성으로 대답하는 성향으로 발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조금 더 느긋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4-2. 간섭(하)

자녀에게 자율성을 많이 허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높은 아동인 경우에는 비교적 바람직하지만, 과제 수행에 열의가 없을 경우에는 아동이 일방적으로 즉흥적이고 즐거운 것만 추구하려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일단은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후에도 진전이 너무 없을 때는 조금씩 개입을 하시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1. 처벌(상)

한국의 부모들은 이 점수에서 많이 너그러워서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서 어느 정도 처벌은 필요한 것입니다. 신체적 처벌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심리적으로 잘못을 느낄 수 있는 반성의 시간을 갖고 또 느낀 점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일방향적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모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물리적 행동은 하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5-2. 처벌(하)

자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아시절에 적절한 훈육이란 적당한 압력이나 행동적 제제도 필요합니다. 행동규범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자녀도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깨닫게 되고, 또 반복된 노력으로 부모의 규범을 내면화시켜 자기 것이 될 때 바람직한 행동습관으로 형성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 데, 자상한 어머니와 엄한 아버지의 조합이야말로 이상적인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 감독(상)

자녀의 일상 스케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지만, 너무 많이 감독하시면 오히려 거짓말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정은 자발성에서 생겨납니다. 이런 양육방식은 자녀가 어릴 때는 성적이 올라가지만 초등 고학년 이후는 시키는 것만 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발성과 탐구심, 사고력, 어려운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는 것은 같은 심리적 차원으로 발달해 나갑니다. 조금 더 허용적으로 반응하시고, 확인하려는 행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6-2. 감독(하)

자녀를 많이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시는 유형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긴장감도 낮아지는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을 경우는 지루하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게 되는 성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좋은 습관을 갖추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7-1. 과잉기대(상)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항상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부족하다는 심리상태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마음 가짐은 아무리 조심하신다고 해도 어머니나 아버지의 눈빛, 음성 톤, 행동 등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의 내면은 점점 나약하게 되는 셈이지요. 자녀의 장·단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발달곡선은 개인차가 많기 때문에 수평적 비교를 하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고력만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 급격히 발달하는 아동들도 많으니까요.

7-2. 과잉기대(하)

자녀의 모든 면을 인정해주시려는 양육태도이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긴장이 이완되는 양육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대를 갖고 환경조성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경적 자극을 어느 정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은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에 필수요소입니다.

8-1.비일관성(상)

양육태도 중에 가장 조심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점수가 높은 부모들은 상당부분이 자신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현재 생활상황에서 불만족감을 자녀에게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일관성 있는 부모를 만나기를 원하고, 아동도 나이가 들수록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할 양육태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마음상태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님들은 공부 영역과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에 따라 다른 기준점을 갖기는 하지만, 각 영역마다 시종일관 동일한 판단기준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4개의 커피 잔인데 오늘 깨뜨릴 때와 일주일 후 깨뜨릴 때 반응이 다르다면 아이들은 무척 혼란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모님은 훈육을 하실 때 그때그때 하시고, 모아서 한꺼번에 꾸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8-2.비일관성(하)

매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양육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의 경험이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바깥세상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을 이해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은 어머니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쁜 감정을 느낀 이유를 설명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 아무 것도 해당되지 않을 때:

귀하는 매우 이상적인 양육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육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양육태도검사(PAT) 해석 지침서

개발자:임호찬

펴낸곳:마인드프레스

인 쇄:2009년 1월 10일

발 행:2009년 1월 15일

(139-895)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1279번지 중앙H 102-205

전화:02-6221-0490 팩스:02-6008-5966